

5도2촌 시대와 도농통합의 페러다임 전개방향



유상오 박사
경향신문 전문위원

1. 들어가면서

참여정부는 정권초기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5도2촌 시대를 역설했다. 5일은 도시의 문명과 소득을 창출하고 2일은 물 맑고 공기 좋은 시골에서 전원생활을 하지는 취지다. 지금같이 농촌이 어렵고 고령화가 급속히 추진될 때 도시의 활력을 불어 넣어 농산어촌활성화를 하자는 말이다.

과연 정부의 이런 좋은 취지의 정책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할까. 정부의지대로 된다면 국민들 삶의 질도 높이며 농촌소득도 올라가며 사회문화적 교류도 고양돼 농촌이 갖는 다원적 기능을 높이는 일석 사조의 전대미문의 좋은 정책이 될 것이다.

2. 정부정책 방향과 문제점

2-1) 목적

도시와 농촌의 주민간의 교류와 체재를 통해 도시민에게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 결과적으로 농촌다움을 유지 보전하고 어메니티(쾌적함:amenity) 증진을 도모한다. 이것

을 통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늘리고 마을에 도시의 활력과 교류를 증진시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메인부서가 없으며 국가균형위에서는 큰 틀의 터치만 하지 구체성이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

5도2촌이 운동성을 가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업무영역과 주무부서, 예산, 조직 등을 가져야 하며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적극적인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전반적인 측면에 부족함이 많다.

2-2) 정부시책의 보완방향

가. 보완방향

- 도시민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도시민 스스로 주말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한다.
- 정부는 도시민의 주말을 농촌에서 보내는 캠페인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대안은 없는 실정이다.
- 동일한 지역생활권 등으로 동질성을 가지며, 농산어촌마을과 연계해 발전 잠재력이 있는 도농보완 클러스터를 마련할 수 있는 소규모 권역을 연계

- 농촌지역을 전원생활 여가휴양 자연환경보전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원적 기능을 확충
- 도시민이 원하는 지역별 특성을 살려 여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특성화 개발
- 도시민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주민과 지역내 관련전문가 등의 배려와 이해 협조체제마련

나. 진행사항

2004년부터 국가균형위의 문건에 5도2촌의 필요성을 주5일근무제와 고속철완공등과 더불어 주장되었으나 구체적인 운동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도농통합의 필요성은 역설하지만 운동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7월 농특위의 대통령보고에서도 5도2촌을 언급했지만 농특위도 균특위와 같이 위언회성격의 권한과 집행력이 없는 국가자문기관이기 때문에 한계는 명확하다.



▲ 도시민이 농촌체험을 하고 있다.

3. 러시아의 다차의 교훈

러시아에 사는 외국인등이 가장 부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다차'라 한다. 다차는 러시아인들의 별장을 말한다. 우리에게 별장이라고 하면 부유층의 향유물이라는 선입견이 먼저 떠오르지만 러시아에선 세명 중 한명이 다차를 소유하고 있다. 다차는 결

코 화려하지도 않고 스스로 주말을 즐기는 수단이자 먹거리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대부분의 러시아 다차는 작은 텃밭이 있는 통나무집으로 구성돼 있다.



▲ 러시아 다차의 모습

다차 시즌인 5월부터 9월까지 러시아인들은 주말마다 교외에 있는 다차에 가서 텃밭에 야채나 과일을 심고 가꾸며 삶의 짜든 때를 벗긴다. 그리고 본격적인 여름철에는 가족이나 친족단위로 모여 아예 다차에 가서 지낸다. 우리나라에게는 매우 부러운 현실이지만 정부가 좀더 5도2촌에 신경쓰고 정책적으로 도시민을 돕는다면 가능하다.

러시아보다 따뜻한 우리나라는 3월부터 11월까지 농사가 가능하며 체류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다차문화는 18세기초 표트르 대제 시대에 처음 생겨났다. 페테르부르크를 수도로 정하면서 표트르는 자신의 측근들에게 다차를 나누어 주었다. 귀족들의 여름 휴양지로서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초대된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머물면서 교류하는 곳이 됐다.

러시아의 10월 혁명전까지 다차는 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키예프 등 대도시 주변에만 있었다. 혁명 후 다차는 테러와 굶주림으로부터 모면하기 위한 장

소로 잠시 이용됐지만 곧 모두 국가소유로 됐고 그 후 점차 노동자들의 휴양시설로 바뀌었다. 고위 공직자들에게는 따로 다차가 제공되었다. 1940년대 전후에나 식량난 때에는 다차가 휴식의 공간으로서뿐만 아니라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다차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소비에트시대의 산물이다. 다차의 형태는 점차 엘리트층과 중산층에서 서민층으로 확산됐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도시민이라면 누구나 여름철 교외의 다차로 향하는 도시민의 한 생활이 됐다. 차가 없으면 버스나 기차를 타고 자신의 다차가 있는 시골로 향한다. 다차는 소유하지 않아도 임대해 사용할 수 있었다.

러시아정부가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에 걸쳐 다차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땅을 무상분배하면서 다차는 지금까지 러시아인들에게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됐다. 도시의 소음과 공해에서 떠나 아이들을 마음껏 뛰놀게 하고 채소와 과일을 직접 길러 먹으며 자연 속에서 즐기는 다차문화는 러시아인들만의 멋과 여유다.

4. 대안을 찾아서

다른 한편 지난7월 14일 농특위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 및 이주 촉진을 위한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1) 귀농정보, 행정지원 등을 위한 인터넷 종합정보망 구축 및 전담조직 운영
- 2)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정주 유형별로 맞춤형 정주공간 조성

- 3) ‘여름휴가, 농산어촌에서 보내기’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제도개선
- 4) 열악한 농어촌의 생활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 이러한 추진내용이 현실화된다면 사회분위기는 좋아지겠으나 도농간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요인은 큰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구체성이 없는 내용의 전개보다는 러시아와 같이 토지나 별장임대나 별장을 짓는데 비용을 저리용자 내지는 무이자 용자와 같은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조사 배경 및 필요성

- 주5일근무제 실시 도시주민 여가수요 패턴 변화 및 농산어촌 지역 여가수용태세 조사가 필요
- 불균형발전과정에서 소외된 농산어촌 등 지역의 발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실태 분석

도시지역 여가수요	농산어촌 여가수용태만
<p>□ 국내여행수요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일근무제 실시로 여행지순공로 확대 (연 3.4회 → 6.0회) ○ 여행시간 : 1.2시간 증가 (2.8시간 → 4.0시간) ○ 여행거리 : 600km 확대 (133km → 196km) ○ 체류기간 : 당일 → 숙박 (1.6일 → 2.3일) ○ 여행경비 : 30% 증가 (15만원 → 22만원) <p>□ 여가생활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5일 근무제로 여가·농동기 여가 활동 증가 ○ 관광여행 : 5.4% → 23.1% ○ 레저스포츠 : 7.6% → 17.1% ○ 지역 휴식 : 37.7% → 2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촌지역 여행시 가장 개선할 점 : 하드웨어 부족(숙박·상·레저·도시민 24.0%, 소프트웨어 부족(농·어·어촌·지역민 29.3%) ○ 농산어촌 발전에 가장 필요한 사항 : 지역소득·고용기회확충 (도시민 33.7%, 농산어촌주민 44.3%) ○ 주5일근무제로 가장 실감할 영향 : 음식업(농촌주민 34.5%, 호텔·숙박업(도시·농촌주민 각 29%), 스포츠레저 (도시민 13.1%) ○ 농산어촌주민 부업 : 주민 33.7%가 부업 중이거나 의사 있음 ○ 경영·재정정부 부업지원 희망사항 : 사업자금(33.5%), 사업정보 및 기술 (25.6%), 사업홍보 및 판로(18.7%) ○ 최저임 지역투자 : 농산어촌주민 62% 긍정적 평가

사 사 점

- 주5일근무제의 시행으로 도시민과 농산어촌 방문 활성화 대폭증대
- 농산어촌지역의 여가수용태만은 체계적으로 파악함
- 농산어촌 지역을 새로운 원거리지역으로 육성

자료) 주5일근무제에 따른 국민여가활동 및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보고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도 위 표어처럼 깊이 다양한 영향을 전국의 농산어촌으로 수렴하고 새로운 거점 도시로 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는 민간차원의 운동체대안이 시급하다. 표어처럼 같이 도시민들의 하드웨어공급과 농민들의 소프트웨어공급 그리고 이것을 연결한 유관연계와 공동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본다. 농촌에서의 체재정주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용하는 농민과 농산어촌이 개방적인 수용태세가 되어야 하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